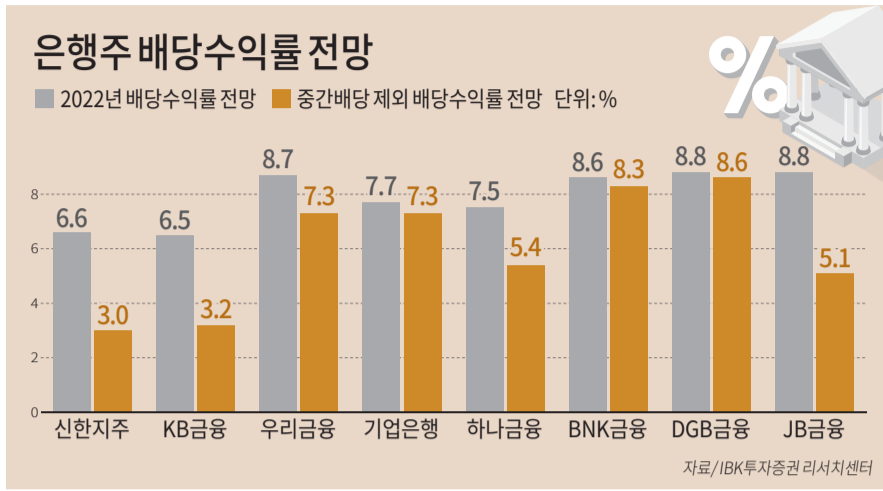


정기예금보다 나은 은행株... 기말 배당수익률 6% 전망

연 은행주 배당수익률 전망 7.5%
4대 금융 3분기 합산 이자익 10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영향

올해 국내 은행주 평균 기말 배당수익률 전망치는 6%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기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이 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4대 금융주주의 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대 금융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3분기(7~9월) 연결기준 합산 순이익은 4조88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4조1208억원) 대비 18.6%가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



이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8547억원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의 증가가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 세계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올랐고, 예대마진이 커졌다. 이자 이익 증가분이 비

이지 이익 부분의 부진을 상쇄했다. 4대 금융주주의 3분기 합산 이자수익은 10조1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이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4대 금융주

2조17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5조4790억원을 팔아치운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금융지주 1조720억원, KB금융 6260억원, 하나금융지주 2990억원, 신한지주 1800억원 순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주에는 하나금융, 신한지주, KB금융 등 대형 시중은행들이 주가가 4~5% 대씩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며 "배당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의 은행주 매수세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주는 고배당 전통 강자로 꼽힌다. 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30%까지 높이고, 자사주 매각 등 주주환원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금융주주의 배당 정책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연간 은행주 평균 배당수익률 전망치는 7.5%, 중간 및 분기 배당 제외 기말 배당만의 전망치는 6%"라며 "최근 은행주 주가 상승으로 배당수익률 전망치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수치이며, 코스피 배당수익률 전망치는 2.4%로 은행주 배당수익률 전망치가 월등하게 높다"고 분석했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보다는 배당 정책이 주가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말 배당 규제로 국내 은행주가 미국 은행주 급등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은행주 투자자들은 감독 당국의 배당에 대한 스탠스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실적 악화에 비용 절감... 중소 증권사, 허리띠 졸라 맨다

3분기 실적, 전년비 절반 가까이 감소
HTS·MTS 중심 운영... 효율성 증대

중소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 감축과 사업 축소 외에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비용 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이달 말 웹트레이딩서비스(WTS)를 종료한다. 다올투자증권도 WTS와 비대면 서비스 '뉴지스타', '5STAR' 등을 오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발

표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주식 거래 보조 서비스 '큰손투자'와 로봇 기반 종목추천 서비스 '스톡봇'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관련 서비스들을 폐지하는 대신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중심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리테일서비스 축소 추세는 증시부진,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풀이된다. 증권사들의 올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은 비용 감축에 나서려는 분위기"라며 "경기침체로 내년에도 업황이 어려울 전망에 어떻게든 비용적인 부분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국내 중소형증권사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국내 대형 증권사들 역시 인원 감축, 사업 축소 등 구조조정 칼바람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9개 증권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380억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4668억원)을

제외하면 2분기(1조823억원)보다 1111억원(10.3%) 줄었으며, 전년 동기(2조5161억원) 대비 42.8% 감소했다.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5791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7881억원) 대비 41.2% 줄었다.

증권사의 3분기 수수료 수익은 2조935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1.8% 감소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수탁수수료는 1조1878억원으로 주식거래대금 등의 감소로 전 분기 대비 9.3% 감소했으며,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는 992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7.2% 줄었다.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도 285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6%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위기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증시 반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증시 반등에 더불어 4분기에 금리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려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일각에서 선제적인 조치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수익성 둔화에 대응하는 비용 효율화 조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동성 지원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만큼 도산 가능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감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올 도시정비사업 수주 5조 돌파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이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액 5조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일 시공사 선정에 앞서 임시 총회를 개최해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삼익파크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50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4746억이며,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누적수주액 5조 2763

억을 달성했다.

대우건설은 최고급 하이엔드 주거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프루지오(Prugio)'와 '써밋(Summit)'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수주실적 호조의 배경으로 꼽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선택해준 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전(全)임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도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 분야에서 수익성 높은 사업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서울 아파트값 27주 연속 '내림세'

매매수급지수 70선 붕괴

집값 하락세와 금리 인상 기조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2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의 하락률이 1%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며 매매수급지수는 70선이 붕괴됐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6%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주(-0.52%)보다 0.04%포인트 확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하락(-0.01%)한 뒤 27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도봉구(-0.83%→-0.99%)로 방학·창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커졌다. 노원구(-0.88%→-0.95%)는 하계·중계동 구축, 강북구(-0.74%→-0.87%)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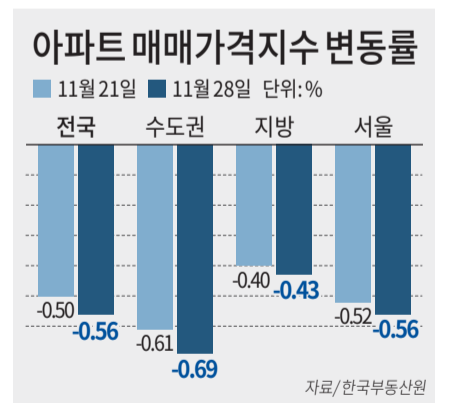
서북권에서는 은평구(-0.61%→-0.70%)가 불광·진관·응암동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남권의 경우 영등

포구(-0.54%→-0.58%)는 신길·여의도동, 강서구(-0.47%→-0.51%)는 가양·등촌동 구축, 금천구(0.54%→-0.61%)는 시흥·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7로 전주(67.9)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 첫째 주(2일 기준) 91.1을 기록한 이후 30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은 줄어 들고 미분양 주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900건에 불과해 전년 동월(2839건)에 비하면 68.3%가 줄었다.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866가구로 전월 대비 20.4%(147가구)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3단지'는 지난달 전용면적 49㎡가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거래가격



(7억2000만원) 대비 1억7000만원 하락했다.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 2단지'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44㎡가 3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전보다 과감한 수준의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 유도를 고민할 때"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은 대출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최초주택구입자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한 주택 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대환 기자 kdh@